

어느 빈 집에서의 단상

김온 개인전

- 1) marginalia/ 10.10~10.20/ 청주창작스튜디오 전시장
- 2) 47page/ 10.12~10.15/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47, 1층

1. 존 케이지(John cage)의 <4' 33">는 1951년 하버드 대학의 무음실에서 탄생한다. (無反響室, anechoic chamber_공학연구를 위한 실험실로 소리의 울림과 반사를 완전히 차단한 방) 알려진 대로 그는 그 곳에서 스스로의 몸 속에 흐르는 혈류와 심장박동의 고저음(高低音)을 들었다. 절대의 침묵 혹은 여백(margin)이 관념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갑자기 지각으로 연동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정보의 송수신과는 어쩌면 관계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관념의 세계로 이어지는 정보의 순환이라는 것은 여백과 같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세우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는 영속적인 창발의 장소이어야 할 것이다.

음(音)은 발생과 동시에 소멸 속으로 사라진다. 두 가지 이상의 동기로 발생된 음이라 할지라도 그 피치는 계속되지 않는다. 청자는 매번 사라지는 음들의 간격을 연결하며 새로운 음악, 혹은 대화를 듣는다.

2. 『Marginalia』_공간에 설치된 비슷한 높이의 마이크들은 사다리 위 허공을 향해 켜져 있지만 전시장은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아무 사건도 없다. 전시장 벽에 팽팽하게 당겨진 피아노 줄은 어떤 미동 없이도 사각거리는 착각을 불러오는 백지 두장을 붙잡고 있다. 보르헤스의 단편소설『지친 자들의 유토피아』는 낡은 지침 위에서 작가의 손에 잘려나간 마진(margin)의 종이만 남아있다.

……아. 액자 안의 페이지는 소설책의 원본이 아니다. 작가는 활자 인쇄의 여백(margin)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본의 그림자, 즉 책 페이지의 표면을 스캐너로 읽은 뒤 다시 프린트한 것을 자르고 걸어 놓았다. 텍스트의 여운으로 채워진 표면은 종이 이전의 대상과 그 이후의 상황 사이에 발생한 거리(distance)를 간직한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설과 뒤따라오는 작가의 ‘읽기’를 의식하게 되는 만큼의 거리이다. 전시장의 여백은 묵언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실존의 혼들림과 파장, 관념적인 소음의 공간이 된다. 읽기와 쓰기는 시각을 전제로 발현되는 행위이지만 김온은 이것을 ‘노랫소리’, 또는 ‘듣기’의 물신으로 다시 실험한다. (사실 모든 소리가 없는 읽기의 순간조차도 역시 시간의 영속에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작가는 스스로 말하는 자이자 동시에 ‘말 되어지기 이전의 흥얼거림’,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어떤 감흥, 진동을 기다리고 있는 청자(聽者)이다.

Scene 3. 『47page』_빈 집은 오래 전부터 그 곳에 있었다. 상가도 네온 싸인도 없는 한적한 길가에서 의식하는 바 없이 이미 계속 있어 왔다. 『Marginalia』의 전시장에 서 있는 관객은 눈 앞의 작업들에 관심을 갖겠지만, 작가는 시각의 의미 바깥에서 다시 한번 소환되는 『47page』의 여백을 생각한다. 빈 집의 구석에서 뜯어진 도배지와 작가가 가져다 놓은 검은 종이가 놓여진 설치작업에는 ‘자연 경치_Natural Scenery’라고 쓰여 있었다. 낯선 동네에서 전시를 보고 돌아 나오는 좁은 길 위에서 어느 집 개수대에서 나와 하수구로 흘러가는 물의 유난한 소리를 들었다. 흘러가는 소리는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다른 우주에 편승되는 것인가. 소리 이전의 상태를 상상해 보다가 방금 들은 물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부질없다. 다시 듣는다 한들 내 귀도 그 만큼 거리의 다른 우주의 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부터

김운, 〈nigram〉, inkjet
Print, masking tape, 각
176×136×20cm, 2013
〈marginalia〉전시 전경

김운, 〈Natural Scenery〉,
folded paper, bundle of
paper, 90×55×8cm, 2013
김운, 〈Snow Writing #2〉,
neon, trans, mirror,
120×45.5×5.5cm, 2013
〈47pages〉전시 전경



글에 해당하는 김 운의 개인전은 청주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 (Marginalia) 와 같은 기간 중 4일 동안 청주 향교 근처의 빈 공간에서 이루어진 (47page) 프로젝트로 동시진행 되었음을 밝힙니다.